

테일러드 재킷 봉제방법 비교 연구

- 의복구성 교재를 중심으로 -

신장희·손희순**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wing Teaching of Tailored Jacket

Jang-Hee Shin · Hee-Soon Sohn**

Ph. 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5. 20. 접수; 2009. 6. 29. 수정; 2009. 7. 3. 채택)

Abstract

The following research analyzed the sewing teaching of the tailored jacket shown in fashion textbooks, which are currently used in universitie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ashion industry. To analyze the sewing teaching of tailored jackets, we analyzed 35 textbooks in the market. Among them we used 14 textbooks which dealt with the patten formation method of tailored jackets, and cutting and sewing methods.

First, the stitching direction and the location of attachment varied. The type of sticking tape and its position also differed, emphasizing the need to make an institutionalized education material which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fabric and its silhouette.

Second, controlling the ease length of the right side sewing princess line, or information about the shoulder line and sleeve line of the notch as not specifically shown in the textbooks. Furthermore, not many textbooks showed how to pull the lower part of the texture out of sight, nor did they explain why this needed to be done.

Third, the lining is usually slightly larger than the outer texture of the clothing, as the lining is usually tugged in the sewing process, and this method makes the clothes more comfortable. The method of sewing the princessline 0.2~0.3cm outside the outer pattern was the most recommended. The center-back side was usually 2cm in activity measurements, but it turned out that a textbook which required ease treatment on the shoulder line did not do so on the lining material.

The textbooks used in this research dealt only with how to manufacture a tailored jacket without full explanation about textures which could influence the manufacturing. The production method and process differed between different textbooks, showing the need to make a institutionalized education material. In a quickly-changing era where there is rapid change in the dressmaking procedure, we ne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process more easily through a formalized education process.

Key Words: Tailored jacket(테일러드재킷), Sewing techniques(봉제방법), Comparative study(비교 연구)

Corresponding author ; Hee-Soon Sohn

Tel. +82-2-710-9461, Fax. +82-2-710-9461

E-mail : pattern@sookmyung.ac.kr

I. 서론

남성적인 재킷이 본격적으로 일반 여성층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이다.¹⁾ 현대 여성 복식은 여성 해방운동, 유니섹스, 에로티시즘, 기성복화나 캐주얼화, 의복평준화 현상으로 인해 불편하고 비실용적이던 과거의 의복형태에서 벗어나 활동과 기능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두드러짐으로써 의복을 통한 남녀 간의 성차가 없어지고 연령차도 줄어들게 되었다.²⁾ 이와 같은 복식의 기능화요인에 따라 원래 남성복에 그 기원을 둔 재킷은 여성에게도 받아들여져 널리 착용되었고 신사복 칼라로 여겨지던 테일러드 칼라도 자연스럽게 여성복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현대 의복은 동작의 효율성과 바로 직결되는 기능성과 동시에 심미성을 갖추어야 하며, 착용자의 체형과 착용목적에 맞는 착용자의 의복행동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의류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인 봉제과정은 의류상품의 최종적인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생산라인의 중요한 부분으로, 착용자의 착용감에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요인이다.³⁾

패턴제작과 아울러 봉제공정은 의복을 제작하는데 있어 중요한 공정중의 하나이며, 상품의 질과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봉제공정은 봉제사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 즉, 노하우가 중요하게 여겨져 왔지만, 최근 국내 봉제사의 감소, 생산기지의 이전과 외주(Outsourcing)가 늘어나고 있어, 각 공정별 분석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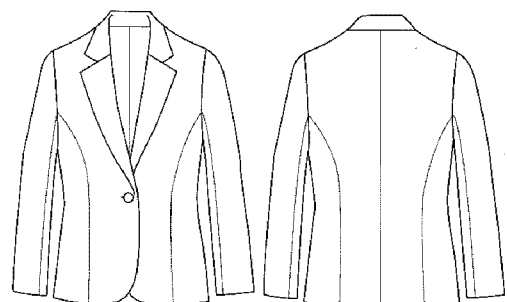
특히 테일러드 재킷은 봉제공정이 복잡하고 소재나 심지의 종류에 따라 봉제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도나 봉제 시 소재와 심지의 물리적 성질과 패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복구성학 교재들은 의류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취급이 간편한 소재, 기본적인 의류형태와 다른 보조부속들이 없는 일반적인 봉제기기를 중심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현재 의류의 소재들은 과거와 달리 점점 다양해지고 좀 더 특별한 취급방법이 요구될 뿐

아니라 소재에 따라 부자재의 종류와 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디자인 변화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화와 일반 봉제기기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어태치먼트 등이 다양화되어 봉제작업을 단순화하고 용이하게 변화시키고 있어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의류소재와 디자인, 봉제기기의 변화에 맞추어 의복구성학 교재의 내용도 보완되어야 한다.⁵⁾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의류봉제환경에 대비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재와 디자인을 제대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봉제방법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테일러드 재킷 제작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테일러드 재킷의 봉제교육과정에 활용하고,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어가는 의류소재와 디자인의 변화에 맞추어 의복구성학 교재내용의 보완과 함께 현장적응력이 높은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기본 테일러드 재킷 선정

기본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 선정을 위하여 현재 대학 및 패션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임원자의 ‘의복구성학’과 강순희의 ‘의복의 입체구성’을 참고로 하였으며, 시판되고 있는 테일러드 재킷의 적임선의 위치, 고지라인, 라펠의 넓이 등을 참고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테일러드 재킷의 기본 디자인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선정된 재킷 디자인

2. 의복구성학 교재선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 및 패션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테일러드 재킷의 봉제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출판된 약 35권의 교재를 분석하였다. 이들 교재는 크게 부분제작 방식과 의류 아이템별로 한 벌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분류 되었다.

테일러드 재킷은 소재나 심지의 종류에 따라 패턴제작 방법과 봉제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교재 중 기본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제작방법 뿐만 아니라 재단 및 봉제 방법까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교재만을 선별하였다. 교재 35권 중에서 <그림 1>과 같은 암홀프린세스라인 테일러드 재킷디자인으로, 패턴제작, 재단, 봉제방법을 모두 다루고 있는 14권의 교재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패턴제작만을 설명하거나, 테일러링 봉제기법만을 설명하는 교재는 교재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구성학 교재는 <표 1>과 같다.

3. 봉제방법 분석

각 교재별 테일러드 재킷 봉제방법 분석을 위

해 선정된 <그림 1>의 재킷디자인에 따라 겹감, 안감, 겹감과 안감의 합봉 처리로 나누었다. 각 교재별 사용된 세부적인 봉제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겹감은 심지부착, 몸판, 소매, 칼라로, 안감은 몸판과 소매로, 겹감과 안감의 합봉은 라펠과 앞안단 처리, 몸판에 칼라달기, 몸판에 소매달기로 세분화 하여 각 교재에 제시된 텍스트와 사진 및 그림자료 등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겹감

1) 심지부착

심지는 평면적인 원단을 입체적인 의복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곡면을 나타내어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고, 세탁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막아준다. 심지에는 직물심지, 부직포심지, 접착심지, 편물심지, 신축성이 있는 심지 등이 있는데 겹감의 소재와 사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교재의 심지 부착방법으로는 접착심지를 부착하는 경우가 7권, 비접

<표 1> 조사대상 의복구성학 교재⁶⁾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A	의복의 입체구성	강순희	교문사	1988
B	의복구성의 기초와 응용	원영옥	경춘사	1992
C	의복구성학	임원자	교문사	1995 개정
D	서양의복구성	이순홍	교문사	1998
E	초보자를 위한 의류봉제방법	김효숙	경춘사	1999 개정
F	의복구성학	김은경, 김옥경	학문사	1999
G	어패럴메이킹	어미경, 김인주	교학연구사	1999
H	의복구성학	정운자	형설출판사	1999 개정
I	서양의복구성학	조차, 박채련	교학연구사	2000
J	재킷 패턴과 봉제실무	안현숙, 배주형, 장효웅	일진사	2001
K	의복구성	이병홍, 최영순	교학연구사	2002
L	서양의복구성의 실제	권영자, 권순정, 정은아	미진사	2003
M	패션디자인을 위한 패턴메이킹	김경희, 이옥희, 정옥임	교학연구사	2003
N	양장기능사	김선희 외	일진사	2003

<표 2> 걸감 심지부착

	부착방법	라펠, 안칼라에 팔자뜨기	심지부착		심지재단방향		테이프 부착부분	
			전면부착	부분부착	바이어스	직서	바이어스테일	직서테일
A	비접착 (어긋시침)	○	앞길, 안칼라	뒷길,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안칼라,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앞길, 뒷길	B·P부분의 곡선 (B·P부분10cm)	라펠의 꺾임선, 라펠~앞중심길이
B	비접착 (어긋시침)	○	앞길, 안칼라	뒷길,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안칼라,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앞길, 뒷길	B·P부분의 곡선	라펠의 꺾임선, 라펠~앞중심길이
C	비접착 (어긋시침)	○	앞길, 안칼라	뒷길,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안칼라,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앞길, 뒷길	라펠의 꺾임선, 라펠~앞중심길이	
D	비접착 (어긋시침)	○	앞길, 안칼라	뒷길	안칼라	앞길, 뒷길	안칼라심지중양술기, 라펠의 꺾임선, 라펠~앞중심길이	
E	비접착 (어긋시침)	○	앞길, 안칼라	뒷길,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안칼라,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앞길, 뒷길	앞단부분	B·P부분의 곡선, 라펠의 꺾임선, 라펠부분
F	접착	×	안칼라, 겹칼라, 안단	앞길, 뒷길, 앞뒷길밀단, 진동부위, 소매부리밀단	안칼라	앞길, 뒷길, 앞뒷길밀단, 진동부위, 소매부리밀단, 겹칼라, 안단	암홀둘레선, 어깨선, 뒷목둘레선	라펠의 꺾임선, 라펠~앞중심길이
G	접착	×	안칼라, 겹칼라, 안단, 앞길	뒷길, 앞뒷길밀단, 진동부위, 소매부리밀단	안칼라,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앞길, 뒷길, 겹칼라, 안단, 진동부위		라펠의 꺾임선, 라펠~앞중심길이, 뒷목둘레선, 앞어깨, 진동둘레
H	비접착 (어긋시침)	○	앞길, 안칼라	뒷길,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안칼라,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앞길, 뒷길	B·P부분의 곡선, 라펠~앞중심길이	라펠의 꺾임선
I	접착	×	앞길, 안칼라	뒷길, 소매부리밀단	설명없음		설명없음	
J	접착	×	안칼라, 겹칼라, 안단, 앞길	뒷길, 소매부리밀단	설명없음		라펠의 꺾임선, 라펠~앞중심길이, 앞어깨, 겹칼라 꺾임선	
K	접착	×	안칼라, 안단	앞길,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설명없음		라펠의 꺾임선, 라펠~앞중심길이, 앞어깨, 안칼라 꺾임선, 뒷목둘레, 진동둘레	
L	접착	×	안칼라, 겹칼라, 안단, 앞길	뒷길, 앞, 뒷길밀단, 진동부위, 소매부리밀단	안칼라	앞길, 뒷길, 겹칼라, 안단,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진동부위	라펠의 꺾임선, 라펠~앞중심길이, 앞어깨, 안칼라 꺾임선, 진동둘레	
M	비접착 (어긋시침)	○	앞길, 안칼라	뒷길,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안칼라,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앞길, 뒷길	B·P부분의 곡선	
N	접착	×	안칼라, 겹칼라, 안단, 앞길	뒷길, 앞뒷길밀단, 소매부리밀단	설명없음		라펠의 꺾임선, 라펠~앞중심길이, 앞어깨, 겹칼라 꺾임선, 겹칼라둘레	

착 직물심지를 손바느질로 시침하여 부착하는 경우가 7권으로, 비접착 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몸판에 이어져 재단되는 라펠부분과, 윗칼라의 안칼라 부분에 팔자뜨기를 해서 심지를 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은 심지를 부착하는 부위에 따라 재킷의 실루엣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심지부착부위는 전면부착과 부분부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교재가 앞길과 윗칼라의 안칼라에 심지를 전면부착하였고, 접착심지를 사용하는 경우 앞길과 윗칼라의 안칼라와 겹칼라 모두에 전면심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뒷길, 앞뒷길밑단, 소매부리밑단에는 부분부착을 하였고, F, G, L 교재만이 진동부분에 심지를 부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재단 방향으로는 대부분 앞길, 뒷길을 식서방향으로 재단하였고, 윗칼라의 안칼라는 바이어스방향으로 재단하였다. 안칼라, 앞뒷길밑단, 소매부리밑단을 바이어스방향으로 처리하는 교재가 7권, 윗칼라의 안칼라만을 바이어스방향으로 설명하는 교재가 3권이었으며 나머지 4권은 심지의 재단방향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재킷은 다른 아이템에 비해 여러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테이프가 사용된다. 여성복 업체에서 재킷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테이프로는 봉제할 때 늘어나기 쉬운 부분에 작업전에 붙여 겹감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식서테이프, 앞어깨와 칼라처럼 늘려서 봉제해야 하는 부분이나 늘어나서는 안되는 곡선부위에 부착하여 자연스럽게 길을 따라 부착하는 바이어스테이프, 식서와 바이어스가 함께 처리되어있는 테이프가 주로 늘어나기 쉽고 테이프를 부착하기가 힘든 진동둘레에 사용하는 암홀테이프의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테이프의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부위가 달라진다. 재킷에서 테이프 부착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윗칼라 외곽선으로 생산업체에서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내주기 위해서 바이어스테이프와 식서테이프를 윗칼라에 함께 쓰고 있으며, 몸판의 진동둘레 부위에는 암홀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접착테이프 부착부분은 <표 2>와 같이 교재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테이프 부착부분은 바이어스테이프와 식서테이프, 암홀테이프 3종류로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교재 중에서는 의류업체와 같

이 암홀부분에 암홀테이프를 따로 사용한 교재는 없었으며, C, J, K, L, M, N 교재는 바이어스테이프와 식서테이프의 설명이 없이 ‘접착테이프’라고만 되어있었고, 교재 I 는 접착테이프 부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연구에 사용된 의복구성 교육용 교재 모두 심지부착 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고 교재마다 심지의 종류와 부착위치가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 소재의 특성과 실루엣에 따른 좀 더 자세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2) 몸판

재킷패턴에서 겹감봉제 시 ease 분량이 포함되는 부분은 길의 프린세스라인, 뒤어깨선, 소매진동, 소매 솔기선 등이다. ease 분량을 처리하는 방법은 소재에 따라 다르며, 실루엣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조사대상 교재들은 ease 분량 처리방법이나 길이맞춤, 너치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프린세스라인, 어깨선에 관해서는 시접처리정도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권의 교재가 모두 봉제 후 가름솔로 시접을 처리해 주도록 기술하고 있었는데, 프린세스라인에서는 5권의 교재가 프린세스라인을 박아 곡선부분의 시접에 가위밥을 주고 가름솔처리 한다고 하였고, 1권의 교재가 곡선부분을 다림질로 늘린 후 가름솔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린세스라인 시접처리에 관한 설명이 없는 교재의 경우도 1권 나타났다.

3) 소매

두 장 소매의 경우 소매의 옆솔기 부분 봉제 시 큰소매의 바깥솔기는 ease처리를 해주고, 안쪽솔기는 봉제 시 약간 늘여서 박아 입체감을 주는데, E, H 두 권의 교재만이 팔꿈치부분의 ease처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어깨선 ease 분량을 처리하는 방법은 4권의 교재에서만 설명하고 있었는데, 4권중 2권은 정확한 수치 없이 ‘앞판어깨를 잡아당겨 뒤판어깨에 ease를 주면서 박는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준화된 치수의 제시가 필요하다.

<표 3> 걸감 통제방법

	몸판		소매		칼라
	프린세스라인	어깨선, 옆선	소매옆솔기	어깨선 ease처리	윗칼라 제작
A	가위밥주고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설명없음	안칼라 0.2cm 밖으로 당겨박음
B	가위밥주고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설명없음	안칼라 0.2cm 밖으로 당겨박음
C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D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안칼라 0.2cm 밖으로 당겨박음
E	가위밥주고 가름솔	가름솔	팔꿈치 ease처리	설명없음	누름상침
F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뒤어깨 0.7cm 이세처리	설명없음
G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뒤어깨 다트량 ease처리	0.2~0.3cm 당겨박음
H	가름솔	가름솔	팔꿈치 부분 오그려 박음	설명없음	0.3~0.6cm
I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설명없음	0.1cm
J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앞판어깨를 잡아당겨 뒤판어깨에 ease를 주면서 박는다	설명없음
K	다림질로 늘임 후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설명없음	칼라를 꺾임선으로 접어가면서 어긋시킴해서 윗칼라에 여유분을 준다
L	가위밥주고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앞판어깨를 살짝 당기면서 ease처리	안칼라를 당기면서 박음
M	가위밥주고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설명없음	안칼라 0.2cm 밖으로 당겨박음
N	가름솔	가름솔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4) 칼라

기본형 테일러드 칼라는 몸판에 이어져서 재단되는 라펠과 윗칼라로 구성되며 윗칼라는 걸칼라와 안칼라의 2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윗칼라는 걸칼라와 안칼라의 두 겹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디자인상 안칼라가 보이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걸칼라가 안칼라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야 안칼라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테일러드 칼라와 같이 꺾임선이 있는 경우 칼라를 겹으로 뒤집으면 안칼라가 밀려서 보이게 되므로 봉제시 밀림을 의식해 당겨서 박아야한다. 윗칼라 제작 시 걸칼라와 안칼라의 겹과 겹을 마주대고 완성선을 박을 때 안칼라를 약간 당기면서 박으면 걸칼라에 ease가 들어가는데, ease가 있는 쪽은 없는 쪽을 향해 굴러지며 안정되면서 안칼라가 밖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4권의 교재 중 7권의 교재가 안칼라를 당겨 박는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분량이 교재 1는

0.1cm, A, B, D, G, M은 0.2cm, H는 0.2~0.3cm로 소재에 대한 언급 없이 각각 다른 수치로 설명하고 있었다. K, L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고, 칼라를 안정감 있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4권으로 나타났다.

2. 안감

1) 몸판

뒷길의 안감 제작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뒷길 중심부분으로 인체의 활동분량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감 뒤 중심선에 활동분량을 주어야 한다. 뒷중심선 활동분량은 대부분의 교재에서 2cm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1cm인 경우가 2권, 4cm를 주는 경우가 1권 나타났다, 자세한 설명 없이 시접분으로 활동분량을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표 4〉 안감 봉제방법

	몸 판			소매	
	뒤중심선 활동분	프린세스라인	어깨선 ease처리	암홀시접 여유량	시접처리
A	2cm	0.2~0.3cm 내어박음	0.2cm	설명없음	바깥소매쪽
B	2cm	0.2~0.3cm 내어박음	0.2cm	설명없음	바깥소매쪽
C	1cm	0.2~0.3cm 내어박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안소매쪽
D	2~3cm	0.2~0.5cm 내어박음	설명없음	안소매겨드랑이점에서 2cm	안소매쪽
E	시접분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가름솔
F	1.5cm	0.2cm 내어박음	설명없음	안소매겨드랑이점에서 2cm	안소매쪽
G	1.5cm	설명없음	설명없음	안소매겨드랑이점에서 2cm	바깥소매쪽
H	설명없음	0.2~0.3cm 내어박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I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J	2cm	바늘땀을 넓게 박음	앞판어깨를 잡아당겨 뒤판어깨에 ease를 주면서 박는다	설명없음	가름솔
K	1cm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가름솔
L	2~2.5cm	0.2~0.3cm 내어박음	약간의 ease를 넣어서 박는다	안소매겨드랑이점에서 2cm	바깥소매쪽
M	1.5~2cm	0.2cm 내어박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바깥소매쪽
N	4cm	설명없음	설명없음	설명없음	가름솔

안감은 봉제 시 당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의복착용 시 편안하도록 안감패턴을 겉감패턴보다 약간 크게 하여 주는데 프린세스라인을 겉감패턴보다 0.2~0.3cm 내어박는 방법이 6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0.2cm 내어박음이 2권, 0.2~0.5cm내어박음이 1권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바늘땀을 넓게 해서 박는다’고 설명한 교재도 1권 있었으며, 안감처리에 있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5권으로 나타났다.

어깨선 ease 분량을 처리하는 방법은 겉감의 어깨선 ease 분량을 처리하는 방법과 같이 4권의 교재에서만 설명하고 있었는데, 겉감에서 어깨선 ease처리를 해주었던 교재는 F, G, J, L 이었던 것과 비교해 안감에서의 어깨선 ease처리 교재는 A, B, J, L로 나타나 겉감에서 어깨선 ease처리를 해주었던 교재가 안감에서 동일하게 ease처리를 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감도 겉감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치 없이 ‘앞판어깨를 잡아당겨 뒤판어깨에 ease를 주면서

박는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준화된 치수의 제시가 필요하다.

2) 소매

소매의 안감 제작 시에는 안감이 겉감의 길진동부분을 잘 감싸고 넘어갈 수 있는 분량을 진동부분에 여유로 주어야 한다. 특히 몸판의 겨드랑이 부분은 겉감 겨드랑이 시접이 두껍게 서있어 이를 감싸서 돌아가야 하므로 소매 겨드랑이 부분에 여유분을 다른 부분보다 많이 준다. 암홀 시접 여유량은 안소매 겨드랑이점에서 2cm늘여 주는 방법이 4권에서 나타났으나 암홀 시접 여유량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10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의 시접 처리는 교재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바깥소매 쪽으로 시접을 처리하는 방법이 5권, 가름솔로 처리하는 방법이 4권, 안소매 쪽으로 시접을 처리하는 방법이 3권으로 나타났다.

3. 겹감과 안감 합봉

1) 라펠과 앞 안단 처리

라펠을 구성하는 안단의 봉제는 윗칼라와 마찬가지로 안라펠이 되는 길과 겹라펠이 되는 앞 안단 부분 합봉 시 안라펠이 되는 길을 당겨 박는다. 그러면 라펠이 잘 꺾이고 안정감이 있으며 봉제선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교재 중 F, G, L 3권의 교재가 패턴제작 시 겹라펠이 되는 안단부분에 0.3~0.5cm 정도의 여유를 주고 있었으며, A, B, C, D, H, M 교재는 봉제 시에만 안라펠이 되는 길쪽으로 0.2~0.3cm 당겨 박아 봉제선이 보이지 않게 처리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 G, K는 누름상침으로 안라펠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했고, I, J, N의 경우에는 패턴제도 시나 봉제 시 모두 라펠이 넘어가는데 필요한 여유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2) 몸판에 칼라달기

업체를 대상으로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봉제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⁹⁾ ‘칼라를 완성한 후 몸판의 겹감과 안칼라, 몸판의 안감과 겹칼라를 봉제’하는 ①방법(85.4%), ‘몸판의 겹감과 안칼라를 연결하고 몸판의 안감과 겹칼라를 연결한

후 칼라를 한번에 봉제’하는 ②방법(12.2%), ‘칼라를 완성한 후 몸판의 안감과 겹감사이에 놓고서 한번에 봉제’하는 방법(2.4%) 등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테일러드 재킷의 경우 ‘칼라를 따로 제작한 후 몸판의 겹감과 안칼라를 연결하고, 몸판의 안감과 겹칼라를 연결한 후 봉제’하는 ①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권의 교재 중에서 12권의 교재가 ①방법으로 몸판에 칼라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C교재에서 ②방법을, L교재에서는 ①, ②방법 두 가지 모두를 설명하고 있었다.

3) 몸판에 소매달기

몸판에 소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겹감몸판과 안감몸판에 각각 소매를 연결한 후 합봉하는 방법㉔의 경우가 6권, 겹감과 안감이 연결된 몸판에 소매 겹감을 먼저 연결 후 소매안감을 연결하는 방법㉕이 5권, 소매 겹감과 소매안감의 부리를 먼저 연결한 후 몸판겹감과 연결하는 방법㉖이 3권으로 나타났다.

재킷공정의 단계는 공정지침서나 문헌상의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작업자나 경영자의 각각의 노하우에 의존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재나 디자인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지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조공정의 표준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 합봉처리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재도시 라펠안단과 몸판의 크기차이	0	0	0	0	0	0.3~0.5cm	0.3cm	0	0	0	0	0.3~0.5cm	0	0
라펠과 앞 안단처리 (겹감+안감)	0.2cm 당겨 박음	0.2cm 당겨 박음	0.2~0.3cm 당겨 박음	0.2cm 당겨 박음	누름상침	설명 없음	누름상침	0.3~0.5cm 당겨 박음	설명 없음	설명 없음	상침	0.1cm 당겨 박음	0.2~0.5cm 고은상침	설명 없음
몸판에 칼라달기 (몸판+칼라)	①	①	②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②	①	①
	① 칼라완성 후 몸판의 겹감과 안칼라, 몸판의 안감과 겹칼라 봉제 ② 몸판의 겹감과 안칼라, 몸판의 안감과 겹칼라 연결 후 봉제													
몸판에 소매달기 (몸판+소매)	㉗	㉗	㉘	㉘	㉗	㉘	㉘	㉗	㉘	㉘	㉘	㉘	㉗	㉘
	㉗ 몸판에 소매겹감을 먼저 연결 후 소매안감 연결 ㉘ 소매겹감과 소매안감의 부리를 먼저 연결 후 몸판겹감과 연결 ㉙ 겹감몸판과 안감몸판에 각각 소매연결 후 합봉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 및 패션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복구성교재의 테일러드 재킷 봉제방법을 분석하였다. 현재 대학 및 패션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테일러드 재킷의 봉제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출판된 약 35권의 교재를 분석하였으며, 35권 중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제작방법, 재단 및 봉제방법을 다루고 있는 적합한 모델인 14권의 교재를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봉제 시 강도를 높게 해주고, 세탁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심지부착방법에 대한 설명에 있어 교재마다 심지 재단방향, 부착 위치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집착테이프의 종류와 부착 위치 또한 달리고 있어 소재의 특성과 실루엣에 따른 표준화된 교육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겹감 봉제 시 ease분량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 부분인 프린세스라인, 뒤어깨선, 소매솔기선 부분에 대하여 ease분량 처리방법이나 길이 맞춤, 너치에 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프린세스라인 봉제에 관해서는 시접 처리 정도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밑부분을 보이지 않게 당겨서 박아야 하는 부분인 윗칼라 제작, 몸판 라펠부분에 대해서도 '당김'처리를 해주는 교재가 많지 않았으며 당겨 박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복구성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안감은 봉제 시 당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의복착용 시 편안하도록 안감패턴을 겹감패턴보다 약간 크게 하여 주는데 프린세스라인을 겹감패턴보다 0.2~0.3cm 내어박는 방법이 8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뒷중심선 활동분량은 대부분의 교재에서 2cm정도를 주었고, 겹감에서 어깨선ease처리를 해주었던 교재가 안감에서 동일하게 ease처리를 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감도 겹감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치 없이 '앞판어깨를 잡아당겨 뒤판어깨에 ease를 주면서 박는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준화된 치수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구성 교재의 테일러드 재킷 봉제방법에는 의류제작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제작 방법 또한 교재별로 달리고 있었으며, 또한 재킷의 제조공정순서도 교재별로 차이가 있어서 봉제방법 및 제작방법과 제조공정순서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의류봉제환경에 대비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재와 디자인을 제대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봉제방법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표준화된 제작방법으로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의복 제작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갈수록 다양화 되어가는 의류소재와 디자인의 변화에 맞추어 의복구성학 교재내용의 보완과 함께 표준화된 제작방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오설영 (2006). *여성복테일러링*. 서울: 한국 학술정보(주), p.13.
- 2) 홍순태 (2001). 여성복 테일러드 칼라 비교 연구. *대구산업대학교 논문집 15*, p.13.
- 3) 김선영, 최영순 (2006). 의복구성 교재에 나타난 타이트스커트 봉제방법에 관한비교 연구. *복식 56(8)*, p.114.
- 4) 김구영 (2007). 여성복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제작요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 5) 박상희 (2003). 대학의 의복구성 교육교재 내용과 업계 생산공정의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5)*, p.180.
- 6) 강순희 (1992). *Op. cit.*, pp.330-363.
원영옥 (1992). *의복구성의 기초와 응용*. 서울: 경춘사, pp.213-236.
임원자 (1995). *의복구성학*. 서울: 교문사, pp.329-349.

- 이순홍 (1998). *서양의복구성*. 서울: 교문사, pp.200-206.
- 김효숙 (1999). *초보자를 위한 의류봉제방법*. 서울: 경춘사, pp.267-302.
- 김은경, 김옥경 (1999). *의복구성학*. 서울: 학문사, pp.175-233.
- 어미경, 김인주 (1999). *어패럴메이킹*. 서울: 교학연구사, pp.188-206.
- 정운자 (1999). *의복구성학*. 서울: 형설출판사, pp.348- 362.
- 조차, 박채련 (1999). *서양의복구성학*. 서울: 교학연구사, pp.221-228.
- 안현숙, 배주형, 장효웅 (2001). *재킷패턴과 봉제실무*. 서울: 일진사, pp.144-166.
- 이병홍, 최영순 (2002). *의복구성*. 서울: 교학연구사, pp.236-276.
- 권영자, 권순정, 정은아 (2003). *서양의복구성의 실제*. 서울: 미진사, pp.216-248.
- 김경희, 이옥희, 정옥임 (2003). *패션디자인을 위한 패턴메이킹*. 서울: 교학연구사, pp.262-275.
- 김선희외 (2003). *양장기능사*. 서울: 일진사, pp.92-123.
- 7) 강순희 (1992). Op. cit., p.220.
- 8) 최진희 (2002). 여성복 공업용 패턴 제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9.
- 9) 심재희 (2001). 숙녀복 재킷 생산실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7.